



103위 한국순교성인화
해화동 성당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롯데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지혜서 3,1-9

화답송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8,31-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 루카 9,23-26

성가 | 입당성가 [287] 예물준비 [218]

영성체 [165] 파견 [283]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배 마르코	양복연
한추천 모니카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생미사	봉헌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울뜨레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성모회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학부모회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김승애 클라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경재순 가밀라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익명
김효주 수녀 영명축일 축하	유경자 데레사
김애희 테클라 영명축일, 건강	성모회
김애희 테클라 영명축일, 건강	이경자 울리안나
이예진 유스티나 영명축일 축하	복사단
본당신 부감사, 본당수녀 축하	안선정 마리안나
김희철 요셉	김승애 클라라
김수진	김승애 클라라
김희정 영육건강	김영희 클라라
박혜화 도미니카 영육건강	장혜윤 크리스티나
김재연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라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김영희 클라라	익명
민성진 에이몬드 가정	익명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9월 22일	조소연	이태주	김미혜	김미혜	민덕미	최사도요한 김실비아
9월 29일	김진수	민완준	류유리	류유리	유정옥	조바실리오 이유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120,072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까” 히브13.2

▶김효주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마음 모아 영명일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
총 가득하시길, 영적 예물과 꽃다발로 축하의 마음 드립니다.

▶미국본당 제3회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에 교우분들 초대합니다
9/29(일) 1:30pm~4:pm, 다미안홀
▶ 안내 및 티켓구입

*본당 ‘맥주 축제’가 다미안홀에서 열리는 9월 29일(주일)은
미사후 친교모임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복사단 모집

대상: 제단에서 봉사할, 첫영성체 받은 남녀 중고생
문의 및 신청 : 학부모회장 민성진 에드몬드 718-986-3771

▶성령기도회 찬양미사

9/24(화) 오후 6:30~8:30. 다미안홀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공부: 시편과 지혜문학

토요일반(2,4째주)	10am~11:30am	교육관 B1	Fr.김가롤로
-------------	--------------	--------	---------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사도행전~요한묵시록

주일반	12:40pm~1:50pm	교육관 3A
목요일반	10am~11:20am	김효주수녀

▶2025년 부활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교우 한분이 예비신자 한사람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하시길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교리 첫만남: 2024년 10/13(주일), 교육관 3A
세례 및 견진일: 2025년 4월 부활시기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신청: Sr.김효주 347.834.5784
프란치스코 교황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한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체 기능 상태
에 따라 ‘직접 방문교리’ 또는 ‘단기 출석교육’ 가능합니다.
신청: 사무실 347.83.5784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에 오세요

일시: 10/12(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미사지향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
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일미사후 친교실 또는 사무실.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
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
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니다.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
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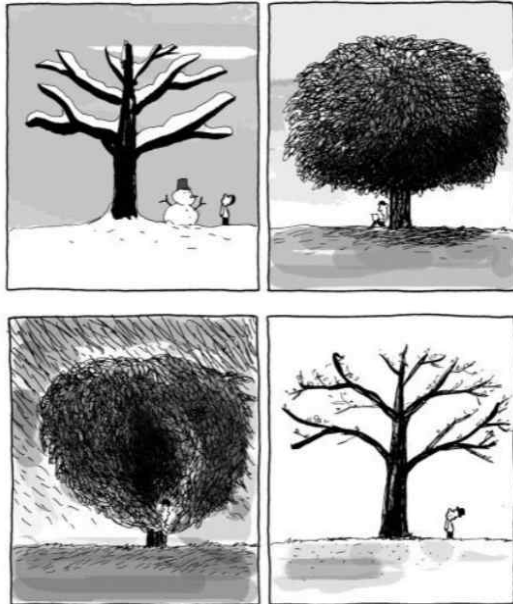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나 무



by 황중환

그런 나무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받아들이는 나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옥토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WONJO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 1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 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밭에 심는 농부를 보건데,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더위에도 몸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들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 되고 여름엔,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거들 때에 빈 대와 껍질만 있다면, 주인은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시간 때문에 그 밭을 박대합니다.

이같이 주님께서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문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하였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두루 무수한 어려움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 오륙십여 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열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인간적인 정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작은 탈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어찌 이렇듯 한 박해가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 아니고 주님의 상이나 주님의 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과 마귀를 공격하십시오.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있음과 같이 하여, 우리도 싸워 이겨냅시다.